



영국출신의 발레 예술감독 데이비드 빈틀리가 기획·연출한 '알라딘'(2008년 작). 사진촬영 세토 히데미



오페라, 발레를 위한 전용공연장으로 설계된 도교 신국립극장의 오페라 하우스. 세계적인 마에스트로들이 '아시아의 라 스칼라극장'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 꿈의 무대다. <도교 신국립극장 제공>

아트센터,
도시의
브랜드가 되다

소문난 공연장을 찾아서
-일본편
<12>도교 신국립극장

후쿠치 시게오 대표

“亞太 문화전당과 예술정신 유사
교류 통해 양국 문화초석 희망”

“신국립극장은 ‘넘버 1’ 보다는 ‘온리 원(only 1)’을 지향합니다. 도쿄에는 좋은 공연장들이 많지만 현대무대예술을 위한 전용극장은 이곳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신국립극장이 아시아의 톱 공연장으로 자리잡은 비결을 묻자 후쿠치 시게오(76) 대표는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공연장이 건립되기까지의 약 30여 년 간에 걸친 치밀한 사전 계획과 뛰어난 역량을 겸비한 3명의 예술감독, 최적의 인프라를 배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맥주회장, NHK방송회장 등을 역임한 후쿠치 대표는 예술감독과 스태프들이 마음껏 예술적 미션을 발휘하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연간 운영예산이 65억엔 정도 소요되는 데 이 가운데 국비지원은 60% 정도입니다. 그나마 지난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복구예산이 늘어나면서 내년엔 예산지원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하지만 많은 일본인들이 신국립극장의 공연을 통해 지진의 아픔을 위로받았습니다. 시민의 일상과 접하며 지역 사회에 활력을 주는 구심체가 되도록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치 대표는 오는 2014년 개관하는 아시아 문화전당에 깊은 관심과 함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국립극장과 아시아 문화전당의 탄생배경은 다르지만 예술로 소통하는 세상을 꿈꾼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다양한 교류프로그램과 축제 등을 통해 두 기관이 한·일 양국의 문화초석이 되길 희망합니다.”

<도교=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최고의 조명·음향... 현대공연예술 ‘亞太 넘버원’

개관 14년... 日 유일 오페라·발레·연극 전용 국립극장
완성도 위해 조명작업만 수십일... 예술가들의 ‘꿈의무대’
年 30편 고품격 라인업 한국·홍콩 등 마니아들 도쿄로

도교=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지난 21일 오후 3시 일본 도쿄 신(新)국립극장(대표 후쿠치 시게오) 오페라 하우스, 문을 열고 공연장에 들어서자 중앙 무대의 대형 해골형상 위로 한줄기 조명이 내리쬐고 있었다. 짙은 어둠이 내려 앉은 객석은 텅 빈채 적막감이 흘렀다. 대신 조명의 세기 등을 조정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몇몇 스태프들의 목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오고 갔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조명조정은 저녁 늦게 까지 이어졌다. 신국립극장 관계자는 이 작업에만 10여일 째 매달리고 있다고 귀띔한다.

신국립극장이 한달(?) 조명작업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완성도 높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다. 신국립극장은 2011~2012년 시즌 작품으로 다음달 2일 베르디의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Il Trovatore) 개막공연을 앞두고 있다. ‘조명’ 하나에도 이처럼 공을 들이는 것을 보면 신국립극장산(産) ‘퀄리티’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간다.

도교 중심기 사부야 혼마치에 위치한 신국립극장은 현대공연예술의 메카를 내걸고 지난 1997년 개관했다. 오페라, 발레, 연극을 위한 국립극장으로는 일본에서 유일하다. 올해로 개관 14주년을 맞았지만 ‘역사

는 이보다 훨씬 오래전인 1966년부터 시작했다.

사실 신국립극장은 ‘준비된’ 공연장이다. 일본 정부는 도쿄 심장부에 세계 최고수준의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기 위해 1966년 4월 국립극장법(현 일본예술문화진흥법)을 통과시키고 특수법인 ‘일본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같은 해 일본 전통예술을 위한 국립극장 대극장과 소극장, 대중예능을 위한 국립연예장 등이 잇따라 개관하면서 공연 애호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오페라, 발레, 연극에 대한 향유 욕구도 함께 커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현대공연예술의 르네상스’를 모토로 지난 1972년 ‘신국립극장 건립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런 연유로 국립기관이긴 하지만 신국립극장 운영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신국립극장이 완공되기까지는 무려 26년이나 걸렸다. 막대한 공사비(약 800억엔)가 걸림돌이었다. 수년간 속만 끊어던 일본 정부는 한 민간기업에게 신국립극장의 공중권(空中權)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재원 마련에 성공했다.

일본의 야심찬 ‘문화프로젝트’답게 신국립극장은 독보적인 하드웨어를 자랑한다. 부지면적 약 2만8500㎡, 연면적 약 6만8800㎡에 이르는 신국립극장에는 오페라와 발레를 전문으로 공연하는 오페라 하우스(1814석), 연극 중심의 중극장(1000석), 다목적 소극장(420석)과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서 있다. 오페라 하우스는 프로시니엄(액자식 무대) 스타일의 극장으로, 4개의 무대(주 무대, 후 무대 및 좌우 양측 무대), 120명의 4관 편성 교향악단을 수용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피트를 갖췄다. 무대와 객석 간의 거리가 가까워

진밀감이 매우 높고,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 한 번쯤 무대에 선 마에스트로들은 ‘아시아의 라 스칼라 극장’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오랜 ‘산고’ 끝에 빛을 본 신국립극장은 개관과 동시에 일본의 문화지형을 단숨에 바꾸어놓았다. 그동안 제대로 된 ‘무대’에서 오페라, 발레의 진수를 느끼지 못했던 시민들은 신국립극장의 뛰어난 레퍼토리에 탄성을 질렀다.

특히 오타카 타다키(오페라), 데이비드 빈틀리(무용), 미야타 케이코(연극) 등 3명의 예술감독들이 내놓는 매년 30여편의 화려한 공연라인업은 일본인들은 물론 한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호주 등 아시아의 마니아들을 도쿄로 불러들이고 있다. 신국립극장은 ‘아시아의 넘버 1’의 위상에 걸맞게 국내외 인재양성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오페라 가수·발레댄서·연극배우 연수가 대표적인 프로그램들로 매년 6~11명을 선정, 수준높은 ‘트레이닝의 장’을 제공한다.

신국립극장의 큐리타 히데미 홍보팀장은 “세계 최고수준의 오페라 전용극장 개관으로 일본인들은 유명 오페라 작품들을 안방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오페라 인구의 저변을 넓혀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섭의도움=일본정부관광국(JNTO)>

제49회 군산시민의 날

근대역사박물관 개관

일시 | 2011. 9. 30(금) 14:00~

※ 기념식 : 2011. 9. 30(금) 15:00 ~ 16:00

장소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일원

군산새만금에어쇼

일시 : 2011. 10.8(토)~10.9(일) 2일간

장소 : 군산비행항 다용도부지 및 비행장

豊·和·格